

# 강진군, 사의재에 심표를 찍다 '여행자쉼터' 개관

## 방문객 체류시간·관광수용력 동시에 높여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

강진군이 지난 11일 강진을 동성리 사의재 일원에 조성한 '강진 여행자 쉼터'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조성한 것으로, 강진읍 도심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방문객 편의와 문화체험 기능을 결합한 복합관광공간을 마련했다.

여행자 쉼터는 2022년 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2023년 기본·실시설계, 같은 해 12월 건축공사 착공, 2024년 건축물 준공을 거쳐 2025년 내부 인테리어 및 콘텐츠 보강을 완료함으로써 약 3년에 걸쳐 완성됐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이 지역 관광수용력 확대와 방문객 체류시간 증가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은 층별로 구분해 1층에 관광정보 검색, 위케이션 업무공간, 소회의실, 휴식라운지 등 실용적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

써 관광객은 물론 원격근무자와 지역 주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층은 강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고려청자 다기를 활용한 차 문화 체험 공간인 '고려다방'과 전통복식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고려의상실'이 마련되어 강진의 정체성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제공 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강진 여행자 쉼터는 방문객이 머물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강진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강진읍 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추진 미술과 함께하는 '메리-go-빙고(Merry-go-Bingo)'

전남 곡성군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섬진강기차마을 전역에서 겨울 특별 이벤트 「메리-go-빙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 감성 포토존 조성, 어린이 특별 미술 공연,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미션형 빙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겨울 이벤트의 핵심은 기차마을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4x4 빙고형 참여 프로그램이다. 관람객은 입장 시 배부되는 빙고판을 활용해 사진인증, 스탬프 수집, SNS 인증 등 지정된 미션을 완료하면 빙고 한 줄만 완성해도 「크리스마스 한정판 글리팅 키트」와 랜덤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6칸 전체를 모두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지역 농산물을 추가로 증정한다.

랜덤 경품은 기차마을 내 레일바이크 및 놀이기구 탑승권, 지역 디지털 상품, 곡성 감성 굿즈 등으로 오직 곡성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들로 준비됐다.

경품은 하루 250명 선착순으로 제

공되며, 겨울철에도 성수기 못지않은 높은 참여 열기가 기대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1일 2회(13시, 15시) 어린이 매직 공연이 진행된다.

생태학습관 중앙 로비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전문 미술사의 참여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겨울철 기차마을의 체험 콘텐츠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기차마을 내 플랫폼과 구역사, 생태학습관, 치치뿌뿌 놀이터 등 4개소에 다양한 크리스마스 테마의 주요 포토존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인증샷 명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즐길거리가 있는 곡성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메리-go-빙고'이벤트는 겨울철 비수기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포토 인증 및 SNS 미션을 통한 자발적 바이럴 홍보 효과, 그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선물 증정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곡성/이정수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1일 군청 면양정실에서 공직자의 규제개선 역량과 소송업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라남도 소속 김혜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지난 2년 동안 담양군 향촌변호사로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군민 권익 보호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와 소송 분야의 실무 지식을 전

## 담양군, 규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 진행

### 행정 전문성 제고 위한 실무 중심 교육 마련

달했다.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선 사례, 행정소송의 기본 이론,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담양군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거뒀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규제혁신은 규제를 단순히 줄이는 일이 아니라 군민의 생활속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소송 대응력을 높여 군민 권익을 지키는 행정을 강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 카메라 뉴스



## 구례군, 군수와 함께하는 구들장 대화 소통 행정 재시동

전남 구례군은 올해 연초에 이어 두 번째 구들장 대화를 지난 12월 9일부터 산동면 내온마을을 시작으로 8개 읍면 156개 마을을 방문한다.

구들장 대화는 군수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주민들과 격이 없이 만나 지난 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밀착형 소통행사이다.

연초 구들장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즉시 처리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했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구례군은 이번 일정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건의사항과 마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례/한경호 기자



## 진도군, '2025년 진도 군민 리더대학' 졸업식 개최

진도군은 지난 11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2025년 진도 군민 리더대학' 졸업식을 열고,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 주도 인재(리더) 30명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자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진도 군민 리더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지역문제 해결 능력 강화 ▲소통과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미래 설계 ▲기획, 토론, 주도 역량 훈련 등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돼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졸업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며, 배운 내용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하며 변화에 앞장서는 군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영광군, 2025년 하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영광군은 12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수돗물 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2025년 수질검사 결과와 2026년 수질검사 계획 및 상수도 주요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영광군 수돗물이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수장 수질계측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또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과정을 보다 더 심도있게 평가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급수과정별 현장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영광/이현식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